

2013–2020

Paradise

사진 33점
사진집: 『Paradise』, Komma, 2020
서문: 에르빈 올라프

표지: *True Self*

필리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스라엘

연작	*Paradise*
연도	2013–2020
작품	사진 33점
장소	필리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스라엘
사진집	『Paradise』, Komma, 2020, 서문: 에르빈 올라프
소장 기관	Getty Research Institute, Rijksmuseum, Stedelijk Museum, Tel Aviv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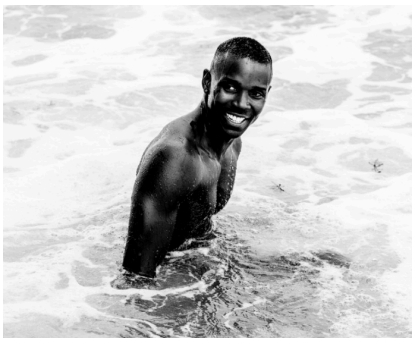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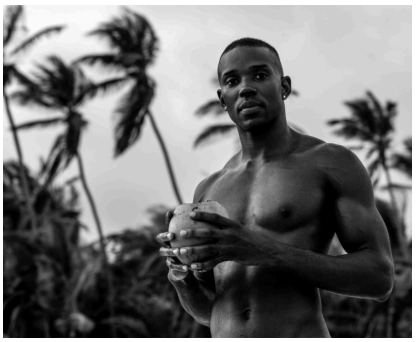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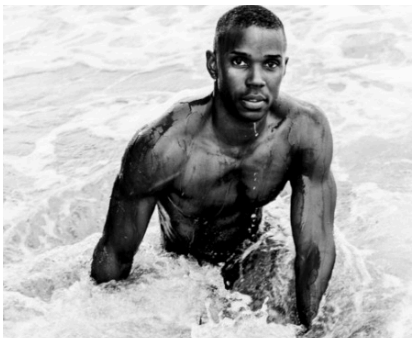
작업이 처음으로 고유의 언어를 찾은 곳.

《Paradise》는 루벤 반 스할름의 시각 언어가 처음으로 고유한 감정의 지형으로 응집된 순간을 표시한다. 인간의 몸과 자연 세계가 연약하고 원초적인 조화 속에서 만나는 공간이다. 필리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스라엘에서 촬영된 이 연작은 누드를 압도적이면서도 친밀한 풍경과 섞으며, 몸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연약함과 그리움, 조용한 변화를 담는 그릇으로 세운다.

개인적인 격변과 지리적 이탈의 시기에서 태어난 《Paradise》는 감정의 상태가 자연환경의 날것의 힘과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여정이 되었다. 이 이미지들에 깃든 젊은 남자들은, 미리 섭외되기보다 대개 현장에서 만난 이들로, 움직이는 존재의 별자리를 이룬다. 조각상 같지만 부서지기 쉽고, 빛나지만 불안한.

여기서 낙원은 손대지 않은 완전함이 아니다. 인간의 형상이, 그것을 드러내고 침식하고 감싸고 변화시키는 원초적인 힘과 맞서는 장소다.

《Paradise》는 반 스할름의 이후 작업을 위한 개념적 토대를 세웠다. 몸과 환경 사이 경계의 붕괴, 감정의 건축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연약함과 욕망, 조용한 변신의 상태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일.

Smile · The Wind · Rush of Water

작가 소개

루벤 반 스할름(1988년생)은 뉴욕, 암스테르담, 텔아비브를 오가며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시각 예술가다. 사진과 영상으로 빛과 물, 날씨, 그리고 자연 세계의 느린 시간을 기록한다.

문의: info@rubenvanschalm.com